

생필품 값 치솟고 휘발유 값 날개 달고

새해도 서민가계 '휘청'

음료·과자·공공요금·등록금 등 물가 줄줄이 인상대기

휘발유와 경유 등 기름값이 11주째 (50일 연속) 고공행진 중이고 더불어 각종 물가까지 들쭉거리면서 서민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기름값 뿐 아니라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값도 치솟으면서 설탕값이 올라 내년에는 공공요금·등록금·전세금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들이 줄줄이 인상대기 상태에 들어감에 따라 신년을 준비하는 서민들의 계획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날개 달' 휘발유 값=26일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가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따르면 광주지역 보통 휘발유 평균가격은 지난 24일 1.8180원대를 돌파한 이후 1809.09원을 기록했으며 전남은 1794.49원으로 조사됐다.

광주·전남지역 휘발유 값은 51일 연속, 11주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광주지역의 경우 휘발유를 1.8180원대에 판매하는 주유소가 지난 21일까지는 21곳에 불과했지만 5일 사이 197곳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국내 유가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석유제품 거래가격도 2년 4개월 만에 최고가를 기록했다.

싱가포르 현물시장의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24일 종가 기준 무연 보통 휘발유(옥탄가 92) 거래 가격은 배럴당 102.76달러까지 올랐다. 이는 2008년 9월29일(배럴당 104.35달러)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휘발유 국제가격은 올해 9월 평균 배럴당 80.64달러에서 10월 87.66달러, 11월 91.16달러로 올랐고 24일까지 12월 평균가격은 99.50달러로, 급격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생필품 값 고공행진=이달 초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11월달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들이 크게 올라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는 배추(192.3%), 무(176.7%), 마늘(102.5%), 양파(45.6%) 등 '장바구니 물가'로 불리는 신선식품이 고공행진을 했으며, 고추장(24.2%), 남자팬티(19.7%) 등 공업

제품과 한방진료비(7.9%), 고속버스료(5.3%), 입원진료비(4.5%) 등 공공서비스 요금, 자장면(12.8%) 등 서민들이 즐겨찾는 음식 등이 큰 폭으로 치솟았다.

전남도 양배추(308.8%), 무(164.4%), 파(131.5%), 배추(125.5%), 마늘(112.1%) 등 신선식품이 폭등했으며, 시내버스료(8.9%), 전세(1.7%) 등 공공요금과 집세도 상승했다.

◇음료값 등 줄 인상 대기=브라질 작황부진과 날씨 영향 등으로 인해 공급량이 부족했던 원당이 폭등하면서 CJ제일제당이 지난 24일부터 설탕가격을 평균 9.7% 인상했다. 2, 3위 업체인 삼양사와 대한제당도 가격인상에 대해 논의 중이다.

이에 따라 설탕을 많이 사용하는 빙과, 음료, 과자, 빵 등 식품가격도 연쇄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어 서민가계 부담 가중이 우려된다. 여기에 소맥가격까지 오르면서 CJ, 대한제분, 동아원 등도 밀가루 가격 인상을 고려하면서 라면 등 밀가루와 관련된 제품 가격 인상에도 덩달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미 emlee@kwangju.co.kr

국내 코스닥기업 1000개 아래 '뚝'

올해 중소형 종목을 중심으로 상장 폐지가 급증하면서 코스닥시장에 상장한 국내 업체가 1000개 밑으로 떨어졌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상장하는 '액트'를 포함해 국내 상장업체는 총 998개로 작년 말 대비 32개가 감소했다. 코스닥 상장 국내 기업은 2007년 10월 사상 처음으로 1000개를 돌파하면서 2007년 말 1021개, 2008년 말 1035개까지 늘었지만 지난해부터 감소하면서 올해 들어 '세자릿수대'로 떨어지게 됐다.

상장 폐지 실질심사 제도가 정착하면서 코스닥 법인 퇴출이 급증한 게

크게 작용했다는 평가다.

올해 코스닥시장에서 상장 폐지된 기업은 모두 74개사로 사상 최대 규모다. 현재도 코스닥 5개사가 상장 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에는 초대 '히든 챔피언'으로 선정됐던 친환경 농업주 세실(084450)이 감사 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황이다.

다만 증권사들이 기업인수목적회사(스팩: SPAC)를 경쟁적으로 상장시키고 중국업체를 중심으로 외국 회사들이 국내 코스닥시장에 잇달아 입성하면서 전체 코스닥사는 1029개로 지난해 말(1027개) 수준을 유지했다. /연합뉴스

카드사, 현금대출 장사로 재미 봤다

실적·비중 줄어도 수익 증가

올해 카드사의 현금서비스 실적과 비중이 줄었지만, 수익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카드 이용실적(일시불+할부+현금서비스)은 364조원이며 이중 현금서비스 비중은 16.6%(60조 4000억원)였다. 일시불이 66.9%(243조4000억원), 할부가 16.5%(6조 1000억원)를 차지했다.

일시불은 작년 같은 기간(220조 3000억원)보다 10.5% 증가했고 할부는 작년(52조4000억원)보다 14.7%

늘었다. 현금서비스는 작년(61조6000억원)보다 1.9% 줄었다.

그러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증가했다. 올해 3분기까지 카드사들의 현금서비스 수수료 수익은 599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794억원)보다 25.1% 늘었다.

이는 작년 연말부터 카드사들이 현금서비스 취급수수료를 폐지하는 등 금리를 인하한 다음에 나온 것이어서 더욱 눈에 띈다. 작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로 기저효과도 일부 있었지만, 카드사들이 그만큼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현금대출 장사에서 '재미'를 봤다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SKB 와이파이폰, 통화품질·AS로 '인기 만점'

SK브로드밴드가 지난 10월에 출시한 와이파이(Wi-Fi) 인터넷 전화 단말기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와이파이(Wi-Fi) 인터넷전화 단말기는 기존의 인터넷전화와 달리 가정 내에 AP(Access Point)를 설치한 뒤 무선랜 방식으로 이용이 가능해 기존 인터넷전화보다 안정적

이고 깨끗한 통화 품질을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가정에서도 AP를 통해 스마트폰, 노트북 등으로 무선인터넷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와이파이폰은 2인치 컬러 LCD의 무선단말기 디자인으로 문자 송

수신, 발신번호표시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 T bag(휴대전화의 사진, 주소록 등을 백업하는 기능) 어플을 이용하는 SK텔레콤 이용자들은 누구나 휴대전화 전화번호를 와이파이폰과 연동해 사용이 가능하다.

특히 이번 와이파이 인터넷전화 단말기는 전국 140여 곳의 삼

성전화 서비스센터를 통해 애프터서비스(A/S)가 가능하다는 편리함도 인기를 끄는데 크게 작용하고 있다.

김태섭 SK브로드밴드 마케팅전략본부장은 "SK 070 인터넷전화는 가입자 간 통화료 무료, 시내·외 단일요금 등 경제적인 장점이 많다"며 "이와 함께 최근 출시한 와이파이폰은 대폭 향상된 통화품질과 애프터서비스가 가능하다는 점이 소비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hki@kwangju.co.kr



27일 광주북구매곡동이마트입점저지시민대책위가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 입점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신세계 이마트 매곡동 입점 성사될까

"지역민에 도전" 상인 반발... 등록심의위 활동 관심

우회입점 추진 등 각종 논란을 빚고있는 매곡동에 신세계 이마트가 입점을 결정하면서 지역 중상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광주매곡동이마트입점저지 시민대책위원회는 광주시 서구 광천동 이마트 광주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가 보여준 이중적인 행태와 부도덕한 상술에 분노를 느낀다"며 "본사 항의방문, 대규모 집회 등 이마트 입점을 막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책위는 "이마트 파자코 동네 상권 몰락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모

자라 인근 학교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교통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추가입점을 하는 것은 지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하며 "입점철회를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29일부터 북구청 대규모 점포 등 등록심의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고 공시활동에 돌입하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등록심의위원회는 북구의회 의원 2명, 시장 상인 회장과 백화점 등 유통업 대표 3명, 시민단체와 언론 관계자들로 구성이 됐으며, 2012년까지 2년간 대규모 점포 등 개설(변경) 등록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매곡동에 입점을 결정한 신세계 이마트 등록신청을 할 경우 등록심의위원회가 사업계획, 상권에 미치는 영향, 슈퍼마켓 협동조합 등의 여부 등을 고려해 등록심의의 하게 되는데 이 심의과정이 향후 지역 사회의 최대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회입점 의혹 논란이 일고있는 북구 매곡동 이마트 입점에정지는 지역 소형법인인 샵리제코리아가 행정소송과 중소상인의 거센반발을 받고 건축허가를 받아 낸 뒤 부동산개발전문업체인 STS도시개발을 거쳐 신세계 이마트에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가계대출 거치기간 연장 'STOP'

금감원, 시중은행 행정지도

거치기간이 끝난 가계대출에 재차 거치기간을 설정해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내도록 하는 행위가 조만간 중단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가계대출 구조 개선 차원에서 이 같은 방향으로 시중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들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의 거치기간을 두고

20~30년 분할상환하는 방식으로 주택대출을 취급해왔다. 문제는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거치기간만 계속 연장해 이자만 값을 경우 상환능력 초과로 인한 부실화 위험성에 노출된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가계대출에 대해서 거치기간 연장을 자제하도록 은행들을 지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은행들이 새로 대출상품을 판매할 경우에도 가급적 거치기간이 없는 비거치식 대출상품을 대출

희망자에게 추천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거치기간의 만기연장을 중단하고, 신규대출엔 비거치식 상품의 판매를 늘려 부실화 위험이 있는 거치식 대출의 비중을 떨어뜨리겠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보통 3년이나 5년 안팎으로 설정되는 거치기간도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단축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실무검토를 거쳐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행정지도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선 충분한 준비 없이 거치기간 연장이 중단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KB WiFi phones. It features a Samsung B phone and a WiFi router. The main headline says '월 2,000원에 인터넷전화와 WiFi를 마음껏!!'. Below it, it lists features: '기존 인터넷전화보다 대폭 향상된 통화 품질(자사 IF-100/110/200 대비)', 'WiFi를 통해 스마트폰/노트북 무선 인터넷 활용(최대 6대)', '전국 어디서나 삼성 A/S 센터를 통해 편리한 A/S', and '저렴한 통화 요금(시내/시외 동일 3분 38원)'. At the bottom, it provides a contact number: '가입문의 1600-4567 / 080-800-4567'.